

漢和辭典 麻韻字의 字音 規定에 대하여*

白惠英**

oistrakh1218@naver.com

李京哲***

kanzi22@empal.com

〈目次〉

序論
本論

1. 開口2等 麻韻의 字音 規定

2. 合口2等 麻韻의 字音 規定
結論

Key word : 마운(Rhyme *Ma*), 오음(Sino-Japanese *Go'on*), 한음(Sino-Japanese *Kan'on*), 한화사전(Sino-Japanese dictionaries)

序論

현재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漢字音은 그 母胎가 된 시기와 지역에 따라 크게 漢音·吳音·唐(宋)音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밖에 慣用音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현용 漢和辭典에서는 사전마다 같은 字音形에 대해서 漢音·吳音·唐(宋)音이라는 字音 規定이 다르거나 字音形 자체가 다르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慣用音表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李京哲(2005b)와 李京哲·白惠英(2008)

* 이 논문은 2013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S2013A043400141]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대학원 박사 수료, 음운론, 제1저자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어일문학과 교수, 음운론, 교신저자

에서, 吳音規定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李京哲(2006)에서, 漢音規定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李京哲·白惠英(2009)에서, 唐音規定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李京哲·白惠英(2011)에서 고찰한 바 있다.

이를 韻별로 살펴보다라도 같은 韻의 동일한 字音形에 대해 사전마다 그 字音 規定이 다르거나 또는 그 字音形 자체를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假攝 2等 麻韻에 대해서는 吳音의 字音形에 漢和辭典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현용 漢和辭典 6종을 대상으로 麻韻의 字音形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조사대상은 2010년 개정된 常用漢字 2136자 중에서 訓으로만 읽히는 字와 國字를 제외한 2059字에서 麻韻에 해당하는 30字에 한하며,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漢和辭典 6종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諸橋轍次(1986), 『大漢和辭典』大修館書店.
 竹田晃·坂梨隆三(1997), 『漢和辭典』講談社.
 鎌田正·米山寅太郎(2002), 『漢語新辭典』大修館書店.
 長澤規矩也·原田種成·戸川芳郎(2003), 『新明解漢和辭典』三省堂.
 小林信明(2012), 『新選漢和辭典』小學館.
 藤堂明保·松本昭·竹田晃·加納喜光(2012), 『漢字源』學習研究社.

상기의 漢和辭典에서 假攝 2等 麻韻字에 해당하는 常用漢字의 字音を 모두 추출하여 각 사전별로 吳音, 漢音, 唐音, 慣用音을 <表>로 정리한다. 이 <表>를 근거로 각 辭典마다 字音 規定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吳音·漢音·唐音자료와 記紀萬葉 표기를 통해 사전마다 그 字音 規定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어느 사전의 字音 規定이 맞는지 그 正誤를 밝혀낸다. 실제 字音形의 검증에 사용한 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吳音자료: 法華經, 般若波羅蜜多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¹⁾
 漢音자료: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²⁾

1) 法華經은 小倉肇(1995), 般若波羅蜜多經은 金正빈(2007), 新譯華嚴經은 榎木久薰(1988), 光明眞言은 榎木久薰(1989), 承曆音義는 小倉肇(1979), 類聚名義抄는 沼本克明(199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唐音자료: 金光明懺法, 小叢林略清規, 觀世音菩薩普門品³⁾

万葉集: 大野透・高山本店(1977)의 索引.

古事記: 高木市之助・富山民藏(1974)의 索引.

日本書紀: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1967)의 索引.

이하 해당 韻별로 常用漢字의 字音形을 추출하여, 각 漢和辭典에서 吳音・漢音의 字音形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실제 고문헌을 통해 정확한 字音形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論

1. 開口2等 麻韻의 字音 規定

<표 1> 漢和辭典 6종에 나타나는 開口2等 麻韻의 字音 規定

常用漢字	聲母	大修館			三省堂			小學館			學習研究社			講談社			大漢和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1假	見k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2家	見k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3加	見k	カ	ケ		カ	ケ		カ	カ		カ	ケ		カ			カ	ケ	
4價	見k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5架	見k	カ	ケ		カ	ケ		カ			カ	ケ		カ			カ	ケ	
6嫁	見k	カ	ケ		カ	ケ		カ			カ	ケ		カ	ケ		カ	ケ	
7稼	見k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カ	ケ	
8芽	疑ŋ	ガ	ゲ		ガ	ゲ		ガ	ゲ		ガ	ゲ		ガ	ゲ		ガ	ゲ	
9雅	疑ŋ	ガ	ゲ		ガ	ゲ		ガ	ゲ		ガ	ゲ		ガ			ガ	ゲ	
10亞	影ʔ	ア	ア		ア	ア		ア	ア		ア	ア		ア	ア		ア	ア	
11暇	匣h	カ	ゲ		カ	ゲ		カ			カ	ゲ		カ			カ	ゲ	
12下	匣h	カ	ゲ		カ	ゲ		カ	ゲ		カ	ゲ		カ	ゲ		カ	ゲ	
13夏	匣h	カ	ゲ		カ	ゲ		カ	ゲ		カ	ゲ		カ	ゲ		カ	ゲ	
14把	幫p	ハ	ハ		ハ	ハ		ハ	ハ		ハ	ハ		ハ			ハ	ハ	

2) 蒙求・群書治要・三藏法師伝・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3) 沼本克明(1997:584-622)의 分韻表를 사용한다.

常用漢字	聲母	大修館			三省堂			小學館			學習研究社			講談社			大漢和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漢	吳	他
15 霸	幫p	ハ	ハ		ハ	ヘ		ハ			ハ	ヘ		ハ			ハ	ハ	
16 馬	明m	バ	メ		バ	メ		バ	メ		バ	メ	マ	バ	メ	ま	バ	メ	ま
17 麻	明m	バ	メ		バ	メ		バ	マ		バ	メ	マ	バ	メ	ま	バ	メ	
18 打	端			だ	ダ					ダ			ダ	タ	タ	ダ	タ	タ	だ
19 茶	澄d	タ	ダ	ち ゃ サ	タ	ダ	ち ゃ サ	タ	ダ	ち ゃ サ	タ	ジャ	ち ゃ サ	タ	ジャ	ち ゃ サ	タ	ダ	ち ゃ サ
20 詐	莊f	サ	シャ		サ	セ		サ			サ	シャ		サ			サ	シャ	
21 差	初f	サ	シャ	さ	サ	シャ		サ	サ		サ	シャ	サ	サ	シャ	サ	サ	シャ	
22 查	牀b	サ	ジャ		サ	シャ		サ			サ	ジャ		サ			サ	ジャ	
23 砂	山f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24 沙	山f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サ	シャ	

* 表中에서 진하게 표시된 字音은 常用漢字表에 기재된 字音임을 의미한다.

** 表中에서 漢音은 漢으로, 吳音은 吳로, 唐音과 慣用音은 他로 略表記하였으며, 唐音은 カタカナ로, 慣用音은 ひらがな로 구별하였다.

假攝 開口2等 麻韻은 漢音에서는 일괄적으로 -a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에서는 -e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舌音字와 唇音字에서는 -a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齒音字에서는 -ja형으로 나타난다.

開口2等 麻韻의 主母音은 南北朝音부터 切韻音까지는 前舌의인 a로 변화가 없으며, 唐代長安音인 秦音에 들어서 2等の 前舌의인 a[front]와 1等の 後舌의인 a[back]가 前舌도 後舌도 아닌 하나의 a[mid, cen]로 통합되었다⁴⁾. 따라서 漢音에서는 일괄적으로 -a형으로 나타나지만, 吳音에서는 그 主母音의 前舌性으로 인해 -e형, -a형, -ja형이 혼재하는 것이다.

먼저 위에 제시한 辭典별 字音 規定의 경향을 살펴보자.

大修館(2001)에서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吳音은

4) 이에 대해서는 李京哲(2014:83)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影母字의 [亞ア], 澄母字의 [茶夕], 幫母字의 [把・覇ハ]는 吳音을 -a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齒音字는 모두 -ja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打ダ・茶チャ・差サ]를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茶サ]를 唐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三省堂(1990)에서도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吳音은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影母字의 [亞ア]와 澄母字의 [茶夕]는 吳音을 -a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齒音字는 대부분 -ja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大修館(2001)과 달리 幫母字의 [把・覇ハ]와 莊母字의 [詐シ]의 吳音을 -e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打夕]를 漢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茶チャ]를 慣用音으로, [茶サ]를 唐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小學館(2003)에서는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吳音은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見母字의 [加カ], 影母字의 [亞ア], 幫母字의 [把ハ], 明母字의 [麻マ], 初母字의 [差サ]는 吳音을 -a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의 齒音字는 대부분 -ja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茶チャ]를 慣用音으로, [打ダ・茶サ]를 唐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吳音形에 대해서는 여러 곳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

學習研究社(2003)에서도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吳音은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影母字의 [亞ア]만은 吳音을 -a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舌齒音字는 모두 -ja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茶]의 吳音을 [ヂャ>ジャ]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茶チャ・差サ]를 慣用音으로, [馬麻マ・打ダ・茶サ]를 唐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講談社(1997)에서는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吳音은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影母字의 [亞ア], 端母字의 [打夕]는 吳音을 -a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齒音字는 모두 -ja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馬麻マ・茶チャ・差サ]를 慣用音으로, [麻マ・打ダ・茶サ]를 唐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吳音形에 대해서는 小學館(2003)과 같이 여러 곳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

大漢和(1984)에서도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吳音은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影母字의 [亞ア], 幫母字의 [覇ハ], 端母字의 [打夕], 澄母字의 [茶夕]는 吳音을 -a형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齒音字는 모

두 -ja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馬マ・打ダ茶チャ]를 慣用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사전에서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吳音의 규정에 있어서는 辭典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전마다 그 字音 規定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辭典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어서 각 音系별로 사전마다의 字音 規定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고문헌에서 그 예를 찾아 字音 規定의 正誤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牙音系에서는 일괄적으로 漢音은 -a형으로, 吳音은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小學館(2003)에서 유일하게 [加]의 吳音을 [力]로 규정하고 있으며, 小學館(2003)에서는 [架・嫁]의 吳音이, 講談社(1997)에서는 [加・架・稼・雅]의 吳音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그 吳音形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집필자가 고민한 끝에 공란으로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吳音資料에서 牙音字만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假攝 開口2等 麻韻 牙音系의 吳音形

聲母		法華經	般若經	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名義抄
見	k	力迦伽加伽駕 ケ家假價稼嫁	力迦駕 ケ賈價稼	力迦	力迦加 ケ假		力駕 ケ家假價
群	g	力伽					
疑	ŋ	ケ牙芽雅	ケ牙雅	ケ牙芽雅			ケ牙雅

* 자간을 고려하여 新譯華嚴經은 華嚴經으로, 類聚名義抄는 名義抄로 약칭한다.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하다.

위의 표와 같이 실제 吳音자료에서도 牙音系는 -e형 이외에 -a형이 혼재하고 있다. 물론 -a형인 [力]가 漢音의 혼입일 가능성이 있으나, -e형인 [ケ]가 없이 -a형인 [力]로만 기재된 예들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위의 표에서 [迦・跢・加・伽・駕・伽]에는 [ケ]의 音註가 가점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吳音形을 [ケ]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梵語의 音譯字이기는 하지만 [迦・伽キヤ]와 같이 -ja형도 출현하고 있다.

즉 常用漢字 중에서 [假·加]는 실제 吳音자료에서 -e형인 [ケ]의 音註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吳音形은 [力]일 확률이 높다. 단지 [假]는 [假病ケビョウ] 등에 [ケ]의 字音形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ケ]가 吳音形임을 확인할 수 있다. [加]는 記紀萬葉에서 [力]의 借字表記字로 쓰였으며, ひらがな[か]·カタカナ[カ]의 기원이 된 한자이다. [假加力]를 포함해, 記紀萬葉에서는 2等麻韻字가 대부분 吳音과 달리 -a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대 한반도의 字音體系가 記紀萬葉의 借字表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⁵⁾, 吳音에 혼재하는 -a형은 그 記紀萬葉의 借字表記의 습관이 吳音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⁶⁾.

단지 李京哲(2013:11)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漢和辭典에서는 記紀萬葉의 借字表記 또는 古音を 별도의 字音體系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字音體系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吳音에 포함시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이를 다시 常用漢字에 적용하면, 牙音系の 모든 常用漢字는 吳音を -e형인 [ケ·ヶ]로 규정할 수 있지만, [加]에 한해서는 小學館(2003)과 같이 吳音を -a형인 [力]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喉音系에서도 일괄적으로 漢音은 -a형으로, 吳音은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影母字의 [亞]에 한해서만 모든 漢和辭典에서 吳音を [ア]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吳音資料에서 喉音字만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假攝 開口2等 麻韻 喉音系の 吳音形

聲母		法華經	般若經	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名義抄
影	?	ア瘧	ア瘧啞				ア啞
匣	h	ヶ瑕下 力霞	ヶ瑕暇夏	ヶ瑕下	ヶ下		ヶ暇

5) 이에 대해서는 李鍾徹(1978:377-388), 이지수(2005:317-335), 李京哲·河素眞(2014:223-244)를 참조하기 바란다.

6) 李京哲·宋在漢(2012:351-352)에서 吳音에 출현하는 麻韻의 -a형이 記紀萬葉 借字表記의 영향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𪛗]는 吳音자료에 音註된 예는 찾을 수 없으나, 類聚名義抄에서 [阿]를 同音註로 기입해 놓았으며, 위의 <表3>과 같이 吳音자료에서는 같은 影母字인 [𪛗]에 [ㄱ]로 表記만을 볼 수 있지만, 古事記에서 [工]의 借字表記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記紀萬葉의 借字表記 또는 古音を 별도의 字音 체계로 따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工]를 吳音形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亞]의 앞으로 吳音자료에서 [ㄱ]音註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吳音形은 [工]로 귀속된다.

唇音系에서도 漢音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吳音에 대해서는 사전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三省堂(1990), 學習硏究社(2003), 講談社(1997)은 唇音系의 吳音形을 일괄적으로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전에서는 -e형과 -a형이 혼재한다. 吳音資料에서 唇音字만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假攝 開口2等 麻韻 唇音系의 吳音形

聲母		法華經	般若經	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名義抄
幫	p	ハ把	ハ芭	ハ芭			ハ芭把
竝	b	ハ琶					
明	m	メ馬碼罵 マ麻	メ罵 マ麻	メ罵	マ麻		メ馬

위의 표와 같이 실제 吳音자료에서도 唇音系는 -e형과 -a형이 혼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明母字의 [馬碼罵]만이 -e형인 [시]로 나타나며, 나머지 幫·竝母字인 [芭把琶]와 明母字인 [麻]는 -a형인 [하·바·마]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麻]는 記紀萬葉의 借字表記에서도 [시]는 볼 수 없으며 [マ]로만 나타나는데, 大野透(1962:183), 藤井茂利(1976:97), 李鍾徹(1978:386-387), 이지수(2005:332) 등에 의해 한반도의 영향이 언급되고 있다⁹⁾. [麻マ] 역시 [加カ]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記紀萬葉의 借字表記의 습관이 吳音의 讀誦에까

7) 김정빈(2007:482)을 참조하기 바란다.

8) 申智娟(2012:19)을 참조하기 바란다.

9) 李京哲·宋在漢(2012:352)에서도 記紀萬葉의 -a형이 한반도의 영향일 가능성에 동조하면서, 吳音자료에서 -a형이 -e형보다 古層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麻マ] 역시 記紀萬葉의 借字表記 또는 古音を 별도의 字音體系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이는 吳音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다시 常用漢字에 대입시키면 唇音字의 吳音形은 [把ハ・霸ハ・馬メ・麻マ]가 될 것이다.

이어서 舌齒音系를 살펴보자. 먼저 端母字인 [打タ]는 淸字에 해당하기 때문에 漢音이건 吳音이건 淸音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淸濁의 混同에 의한 慣用音으로 볼 수밖에 없다. 澄母字인 [茶]에 대해서는 사전마다 그 字音 규정에 차이가 크다.

吳音資料에서 舌齒音字만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假攝 開口2等 麻韻 舌齒音系의 吳音形

聲母		法華經	般若經	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名義抄
知	t	タ吒		タ吒			タ吒
徹	tʰ			タ佗			
澄	d	タ茶	タ茶	タ茶			
娘	n			ナ拏			
牀	ɕ		シヤ齒查				
莊	tʃ	シヤ據					シヤ據
初	tʃʰ	シヤ叉差杈	シヤ差	シヤ叉			シヤ叉差
山	ʃ	シヤ沙砂灑	シヤ沙灑	シヤ沙灑	シヤ沙		シヤ沙灑

[チャ]에 대해서는 모든 사전에서 이를 慣用音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チャ茶]는 切韻音 이후 舌頭音에서 舌上音으로 分立한 것을 반영하여 [タ]가 아닌 [チャ]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는 漢音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또한 學習研究社(2003)과 講談社(1997)에서는 [茶]자의 吳音形을 [ヂャ>ジャ]로 표기하고 있지만, 吳音은 舌上音으로 分立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ヂャ]로 나타날 수 없다. 실제 吳音자료에서도 麻韻의 舌音字는 모두 -a형으로만 나타난다. 또한 [サ茶]는 唐音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¹¹⁾, [喫茶キツサ] 등의 漢語에

10) 漢音자료인 本朝文粹에서 확인할 수 있다. 佐々木勇(2009a:585)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唐音자료인 小叢林略淸規에서 확인할 수 있다. 沼本克明(1997:597)를 참조하기 바란다.

남아 있다. 즉 모든 사전에서 [茶]자의 字音 規定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茶]는 吳音[ㄷ], 漢音[チヤ], 唐音[ㄷ]로 귀납된다.

齒音系에서는 모든 일괄적으로 漢音은 -a형으로, 吳音은 대부분 -ja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지 三省堂(1990)에서 [詔]의 吳音을 [ㄷ]로, 小學館(2003)에서 [差]의 吳音을 [ㄷ]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シヤ]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2. 合口2等 麻韻의 字音 規定

<표 6> 漢和辭典 6종에 나타나는 假攝 合口2等 麻韻의 字音 規定

常用 漢字	聲母	大修館			三省堂			小學館			學習研究社			講談社			大漢和		
		漢	吳	慣	漢	吳	慣	漢	吳	慣	漢	吳	慣	漢	吳	慣	漢	吳	慣
1寡	見k	カ	ケ		カ	ケ		カ	カ		カ	ケ		カ	カ		カ	カ	
2誇	溪 ^h	カ	ケ	こ	カ	ケ	こ	カ		こ	カ	ケ	こ	カ		こ	カ	ケ	こ
3瓦	疑j	ガ	ゲ		ガ	ゲ		ガ	ゲ		ガ	ゲ		ガ			ガ	ゲ	
4化	曉h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5花	曉h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カ	ケ	
6華	曉h	カ	ケ		カ	ケ	ケ	カ	ケ		カ	ケ		カ	ケ	け	カ	ケ	

假攝 合口2等 麻韻은 漢音에서는 일괄적으로 -wa형으로 나타나며, 吳音에서는 -we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wa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合口2等 麻韻도 開口의 경우와 같이 主母音이 南北朝音부터 切韻音까지는 前舌의인 a로 변화가 없으며, 唐代長安音인 秦音에 들어서 2等の 前舌의인 a와 1等の 後舌의인 α가 前舌도 後舌도 아닌 하나의 a[-high, cen]로 통합되기 때문에 漢音에서는 일괄적으로 -wa형으로 나타나지만, 吳音에서는 그 主母音의 前舌性으로 인해 주로 -we형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wa형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辭典별 字音 規定의 경향을 살펴보자.

먼저 大修館(2001)·三省堂(1990)·學習研究社(2003)에서는 일괄적으로 漢音은 -(w)a형으로, 吳音은 -(w)e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小學館(2003)·講談社(1997)·大漢和(1984)에서도 漢音은 일괄적으로 -(w)a형으로, 吳音은 대부분 -(w)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寡]자에 한해서는 그 吳音을 -(w)a형인 [クワ>カ]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전마다 그 字音 規定에 차이가 있는 것은 見母k [寡]자의 吳音形과 더불어 曉母h [華]자의 吳音形이 [ㄱ]인지 [ㄲ]인지뿐이다.

그럼 실제 吳音資料에서 合口2等 麻韻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자.

<표 7> 假攝 合口2等 麻韻의 吳音形

聲母		法華經	般若經	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名義抄
見	k	クワ寡	クワ蝸				クワ蝸寡
疑	ŋ	クワ瓦	クワ瓦	クワ瓦			クワ瓦
影	ʔ	ワ底窪	ワ底				
曉	h	クエ華花化	クエ花	クエ花	クエ華化		クエ化
匣	ɦ	クワ踝	クワ踝				
知	t		タ糙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合口の 경우에도, 開口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主母音을 e로 반영한 -we형 이외에 主母音을 a로 반영한 -wa형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見母k [寡]자는 吳音자료에서 -we형은 찾을 수 없고 -wa형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寡]자의 吳音形은 [ㄱ>ㄲ]로 귀결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전에서 疑母ŋ [瓦]자의 吳音을 [ㄱ>ㄲ]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吳音자료에서는 [ㄱ>ㄲ]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瓦]자의 吳音形은 [ㄱ>ㄲ]로 귀결된다.

曉母h [華]자의 [ㄱ·ㄲ]에 대해서도 사전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次淸字인 曉母h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吳音形은 淸音인 [ㄱ]이 될 수밖에 없으며, [ㄱ]은 [蓮花レンゲ]와 같이 連濁現象이 관여된 경우에 나타는 字音形이기 때문에 굳이 慣用音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¹²⁾.

12) 連濁現象으로 인해 淸音이 濁音으로 변한 것을 일일이 慣用音으로 규정한다면 일정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字音形을 慣用音으로 처리해야 된다. 또한 그러한 字音形을 모두 漢和辭典에서 일일이 慣用音으로 처리하고 있지도 않다.

結論

지금까지 漢和辭典 6종에 나타나는 假攝 麻韻字의 字音形과 字音 規定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의 漢和辭典 6종 모두에서 漢音은 일괄적으로 -a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吳音은 齒音字는 대부분 -ja형으로, 그 이외에는 대부분 -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a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보인다. 또한 吳音의 字音形에 대해서는 사전마다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 2) 見母의 [加]는 記紀萬葉에서 [カ]의 借字表記로 쓰였으며, 그 記紀萬葉의 借字表記의 습관이 吳音讀誦에까지 영향을 미쳐 吳音에서도 [カ]로 나타난다. 현재의 漢和辭典에서는 記紀萬葉의 借字表記 또는 古音を 별도의 字音體系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字音體系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吳音에 포함시켜 분류해야 할 것이다.
- 3) 影母의 [亞]자에 대해 漢和辭典 6종 모두에서 吳音を [ア]로 규정하고 있는데, 古事記에서 [工]의 借字表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記紀萬葉의 借字表記를 별도의 字音 체계로 따로 분류하지 않는 이상 [工]를 吳音形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4) 漢和辭典 6종 모두에서 唇音字의 吳音규정에 차이가 보이는데, 唇音字의 吳音形은 [把ハ・覇ハ・馬メ・麻マ]가 된다.
- 5) 漢和辭典 6종 모두에서 [茶]자의 字音 規定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고문헌을 통해 확인한 결과 [茶]자의 吳音은 [ヂ], 漢音은 [チャ], 唐音은 [サ]로 귀납된다.
- 6) 齒音系의 吳音形은 -ja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 7) 合口韻의 경우에도 漢和辭典 6종 모두에서 漢音은 -wa형으로, 吳音은 대부분 -we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전에 吳音を -wa형으로 규정할 예를 볼 수 있다.
- 8) 사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合口韻의 見母 [寡]자는 吳音자료에서 -we형은 찾을 수 없고 -wa형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吳音形은

[グワ>カ]로 귀결된다.

- 9) 대부분의 사전에서 合口韻의 疑母 [瓦]자의 吳音을 [グエ>ケ]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吳音자료에서는 [グワ]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吳音形은 [グワ>カ]로 귀결된다.
- 10) 曉母 [華]자의 吳音形에 대해서도 사전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次淸字인 曉母^h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吳音形은 淸音인 [ケ]가 될 수밖에 없다.

<參考文獻>

[辭典 및 資料]

- 김정빈(2007) 『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 分紐分韻表』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 李京哲(2005a) 『佛母大孔雀明王經 字音研究』 책사랑
- 榎木久薰(1998) 『高山寺藏寬喜元年識語本新訳華嚴經加點字翻刻並びに分韻表』 『鎌倉時代語研究』 第21輯、鎌倉時代語研究會
- 大野晉(1953) 『日本書紀字音仮名一覽』 『上代假名遣いの研究-日本書紀の仮名を中心として-』 岩波書店
- 小倉肇(1978) 『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Ⅰ)』 『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 第40號、弘前大学
- _____ (1979) 『金光明最勝王經音義字音攷(Ⅱ)』 『弘前大学教育学部紀要』 第41號、弘前大学
- _____ (1995) 『日本吳音の研究 第Ⅱ部 研究篇』 新典社
- 大塚毅(1978) 『萬葉假名音韻字典上・下』 勉誠社
- 鎌田正・米山寅太郎(2001) 『漢語新辭典』 大修館書店
- 柏谷嘉弘(1965) 『凶書寮本文鏡秘府論字音点』 『国語学』 第六十一集、国語学会
- 小林信明(2003) 『新選漢和辞典』 小學館
- 佐々木勇(2009a)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 資料篇』 汲古書院
- 高木市之助・富山民藏(1974) 『古事記總索引』 平凡社
- 竹田晃・坂梨隆三(1997) 『漢和辞典』 講談社
- 築島裕(1967) 『興福寺本大慈恩寺三藏法師伝古点の国語学的研究』 東京大学出版会
- 藤堂明保・松本昭・竹田晃・加納喜光(2012) 『漢字源』 學習研究社
- 沼本克明(1995) 『觀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 『日本漢字音史論輯』 築島裕<編> 汲古書院
- _____ (1997) 『宋音・唐音 統合分紐分韻表』 『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 汲古書院
- 諸橋轍次(1984) 『大漢和辞典』 大修館書店

[論文]

- 김정빈(2007)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pp.309-313, 238-255
- 宋在漢(2012) 『日本 吳音의 韻類體系 研究』 東國大學校 學位論文 pp.14-60
- 申智娟(2012) 『『古事記』에 사용된 借表記字의 字音體系 研究』 東國大學校 碩士論文 pp.1-42
- 李京哲(2005b) 『한화사전 관용음표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日本文化研究』第14輯, 동아시
아일본부학회 pp.471-488
- _____ (2006) 『漢和辭書における吳音規定の問題點』 『日本文化研究』第19輯, 동아시
아일본부학회 pp.367-384
- _____ (2009) 『日本漢字音의 字音形에 나타나는 拍의 關與에 대해서』 『日本語學研究』
第25輯, 韓國日本語學會 pp.129-142
- _____ (2013) 『果·假·遇攝韻의 字音 分類-常用漢字表의 字音を 대상으로-』 『日本研
究』第20輯, 高麗大學校 日本研究所 pp.5-23
- _____ (2014) 『韓日漢字音 1·2等 合口韻 受容様相의 비교고찰』 『日本語文學』第60
輯 韓國日本語學會 pp.79-95
- 李京哲·白惠英(2008) 『漢和辭典 慣用音 表記의 實像-陽聲·入聲字의 誤記例를 중심
으로-』 『日本語學研究』第22輯, 韓國日本語學會 pp.201-216
- _____ (2009) 『漢和辭典에 나타나는 漢音 規定의 問題點』 『日本語文學』第41
輯, 韓國日本語學會 pp.117-130
- _____ (2011) 『漢和辭典에 나타나는 唐音 規定의 問題點』 『日本言語文化』第
19輯, 韓國日本語文化學會 pp.287-297
- _____ (2015) 『常用漢字·人名用漢字 漢音·吳音對照表(1996)의 문제점』 『日
本研究』第63號,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399-416
- 李京哲·宋在漢(2012) 『日本吳音에 혼입된 記紀萬葉의 자음형에 대하여-陰聲韻을 중
심으로-』 『日本研究』第53號,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pp.349-364
- 李京哲·河素貞(2014) 『記紀萬葉의 麻韻2等字 借字表記에 대하여-고대한국한자음과
의 연관 가능성을 중심으로-』 『比較日本學』第30號,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
比較研究所 pp.223-244
- 李鍾徹(1978) 『日本 古代地名 및 人名에 借用된 ‘麻’에 대하여』 『冠岳語文研究』第3輯,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377-388
- 이지수(2005) 『推古朝遺文 字音假名에 관한 一考-ア列-「麻」를 中心으로-』 『日本文化研
究』第13輯, 동아시아일본부학회 pp.317-335
- 趙大夏(2013) 『みそ(味噌)의 語源에 대한 研究-高麗末蘇와 관련된 漢字音 音譯을 중심
으로-』 『日本研究』第34輯, 中央大學校 日本研究所 pp.95-110
- 河素貞(2005) 『上代日本語 借字表記의 聲韻學的 研究』 東國大學校 學位論文 pp.23-38
- 榎木久薰(1989) 『光明真言土沙勸信記의 字音について』 『鎌倉時代語研究』第12輯, 鎌
倉時代語研究會 pp.215-284
- 小倉肇(1995) 『日本吳音의 研究 第 I 部 研究篇』 新典社 pp.418-757

- 佐藤喜代治編(1996)『常用漢字・人名用漢字の漢音・吳音對照表』『漢字百科大事典』
明治書院 pp.410-448
- 高松政雄(1982)『日本漢字音の研究』風間書房 pp.707-734
- 中沢信行(2000)『漢和辭典の字音について』『名古屋大学人文科学研究』第29號、名古屋
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 pp.19-33
- 沼本克明(1982)『平安鎌倉時代に於る日本漢字音に就ての研究』武蔵野書院
pp.537-599
- _____ (1997)『日本漢字音の歴史的研究』汲古書院 pp.584-622
- 藤井茂利(1976)『万葉仮名と朝鮮漢字音-漢字文化の伝来に関して-』『上代文学』38号、
上代文学会 pp.91-100
- 森博達(1991)『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大修館書店 pp.54-60
- 湯沢實幸(1987)『唐音の研究』勉学社 pp.81-83
-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07-108
- Günther Wenck(1957) *Japanische Phonetik*, Otto Harrassowitz Wiesbaden pp.147-149
- W. South Coblin(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pp.128-129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On the *kana* notations of rhyme *Ma*(麻) in the Sino-Japanese dictionaries

In this research, I studied on the *kana* notations of rhyme *Ma*(麻) in six Sino-Japanese dictionar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s followings.

- 1) Sino-Japanese *Kan'on* is appears as a -a type in all of six Sino-Japanese dictionaries. but *Go'on* is appears as a -e type almost and as a -ja type, -a type. And *kana* notation of *Go'on* is different in six Sino-Japanese dictionaries.
- 2) *Ka*(カ) is a *kana* notation of *Jia*(加) in the *Kikiman'yo* and it is appears as a *Ka*(カ) also in *Go'on* because of *Go'on* effected by *kana* notation of *Kikiman'yo*. The *kana* notation of *Kikiman'yo* must be contained in *Go'on* because of *kana* notation of *Kikiman'yo* is not classified as a Sino-Japanese in Sino-Japanese dictionaries.
- 3) *A*(ア), *Kana* notation of *A*(亞) is classified as a *Go'on* in all of six Sino-Japanese dictionaries. but *Go'on* is a *E*(エ) because it is appears as a *E*(エ) in *Kojiki*.
- 4) Labials of Sino-Japanese *Go'on* in rhyme *Ma*(麻) are not consistent in six Sino-Japanese dictionaries. The *kana* notations of *Go'on* in Labial is *Ha*(把), *Ha*(覇), *Me*(馬), *Ma*(麻).
- 5) There are mistakes in all of six dictionaries to the notations of *Cha*(茶). The right *kana* notations are as that *Go'on* is *Da*(ダ), *Kan'on* is *Cha*(チャ), *To'on* is *Sa*(サ).
- 6) Dentals in *Go'on* of rhyme *Ma*(麻) are appears as a -ja type.
- 7) *Kan'on* is appears as a -wa type in all of six Sino-Japanese dictionaries. but *Go'on* is appears as a -we type almost and as -wa type in the case of rhymes that contained 'w' also.
- 8) *Go'on* of the *Gwa*(寡) is *Kwa*(クワ)>*Ka*(カ) because it is appears as a *Kwa*(クワ) and it is not appears as a *Kwe*(クエ) in *Go'on* data.
- 9) *Go'on* of the *wa*(瓦) is *Gwa*(グワ)>*Ga*(ガ) because it is appears as a *Gwa*(グワ) and it is not appears as a *Gwe*(グエ) in *Go'on* data.
- 10) *Go'on* of the *Hua*(華) is not consistent in six Sino-Japanese dictionaries. but *Go'on* of that is *Kwe*(クエ)>*Ke*(ケ) because initial of that is 'h'.